

생체정보반사학의 세계

| 최철규 생체정보반사학회(Specialized Kinesiology) 국제강사, 미내사 강사 |

“우리의 세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아무도 물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실감나게 하는 생체정보반사학의 놀라움을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5년 전부터 그간 공부했던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라는 학문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이 학문이 전해지게 되기까지는 그저 몇몇 학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이제야 한국에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를 교육 보급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매우 진중한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S.K(Specialized Kinesiology, 생체정보반사학)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키네지올로지를 총괄한 명칭이다. 조금 생소할지 모르니 우선 그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할까한다.

인류의 역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주의식과 교섭하려는 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차원의 수많은 의식(儀式)과 행위가 끊임없는 진화의 방편이 되었다.

작게는 인체와의 크게는 우주와의 교감을 이루어내는 키네지올로지 또한 그 하나의 중요한 방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란 이름으로 학문적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64년 조오지 굿하트(George Goodheart, 1916-2008)라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터의 연구와 학계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A.K(Applied Kinesiology)라는 학명과 ICAK(International College of Applied Kinesiology)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그 방법론과 기술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는 키네지올로지의 특징이 된 근력검사법을 정립한 인물로 여러 분파의 방대한 학식들을 A.K라는 학문 속에 녹아내어 매우 다채로운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키네지올로지계의 초석을 만들어 낸 거성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천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K라는 학문은 전문적 의학지식을 요했기에 의사와 카이로프랙터들에게만 교육되었다. 이후 1970년 조오지 굿하트의 절친한 친구이자 AK의 핵심 연구진인 존 티(John, F. Thie)는 결국 일반 보건의 차원에서 키네지올로지의 보급을 강구했다. Touch for Health라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교육되어질 수 있는 키네지올로지를 탄생시키게 된다.

동양의 경락체계를 중심으로 한 근검사법과 반사구(Reflex Point)를

다루는 것이 독특한 새로운 응용기술로 등장하여 무수히 많은 장르의 키네지올로지 확산의 실질적 모태가 되었다.

이제 TFH(Touch For Health)는 키네지올로지 입문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될 정도로 많은 호응과 영향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의 일반보건 분야와 대체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전문가들이 키네지올로지 방식을 습득하면서부터 각자 더욱 전문화된 키네지올로지가 등극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정신과의사였던 존 다이아몬드(John Diamond)박사는 인간의 행동심리학에 적극 활용하여 BK(Behavior Kinesiology)를 완성시켜나갔고, 교육학 전문가인 폴 데니슨(Paul dennison)박사는 뇌의 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EK(Educational Kinesiology)를 고안했다.

인체의 생화학적 차원의 균형을 중요시여기고 있던 지미 스콧(Jimmy Scott)은 HK(Health Kinesiology)를 창안해냈고, 인체의 구조치료 분야 전문 카이로프랙터인 밀톤 도티(Miton Dowth)박사는 Chiroplus Kinesiology를 전문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약 60 여종의 키네지올로지가 인가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새로운 발상으로 신생되고 있는데, 그 분야와 응용 범위는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

■ 여러 키네지올로지 분야

- Educational Kinesiology
- Wellness Kinesiology
- Health Kinesiology
- One Brain

- Neuroenergetic Psychology
- Kinergetics
- Transformational Kinesiology
- Human Ecology Balancing Science
- Applied Kinesiology
- Touch for Health Kinesiology
- Applied Physiology
- Allergy Elimination Technique
- Systematic Kinesiology Technique
- Foundation Clinical Kinesiology
- HoloDynamic Kinesiology
- Aromatic Kinesiology
- Synergistic Kinesiology
- Intuitive Kinesiology
- Chiro+Plus Kinesiology
- Progressive Kinesiology
- Educating Alternatives
- Scientific Kinesiology
- Sports Kinesiology
- Energetic Kinesiology
- BioKinesiology
- Cyberkinetics
- Neural Systems Kinesiology
- Clinical Kinesiology
- Metabolics–Functional Biochemistry
- Neural Organization Techniques
- Professional Kinesiology Practice
- Neuro Emotional
- Manual Kinesiology
- Extreme Kinesiology
- Wholistic Kinesiology
- EnergyField Kinesiology
- Integrative Kinesiology
- Neuro–Linguistic Kinesiology
- Counselling Kinesiology
- Hyperton–X
- SIPS Kinesiology
- Three in One

Concepts(One Brain)

• Contact Reflex Analysis

• Learning Enhancement

Advanced Program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갖추고 숨가쁜 교류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도 1997년 최현묵 선생의 강좌를 기점으로 AK, CRA, NOT, AET, Kinegetics, Bioenergetics 등이 교육된 바 있고, 2002년 공식적으로 ICAK Korea가 도입되어져 활발한 학술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으로 간단한 배경설명은 간추리기로 하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많은 학파의 분화과정 속에서도 진보가 이루어져오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접목과 응용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시작되고, 오랜 시간 무수히 다듬어져 하나의 전문화된 체계가 정립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학문의 유도발전성이 현대의학사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며 특징인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처음 도입부에 기술한 인간과 우주의 식과의 교섭에 대한 양식들에 있어 가장 두각 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Digital Communication)의 가능성을 드디어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제는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의식 혁명”이란 책의 저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키네지올로지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류의식의 진화를 위해 우주정보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환자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눈으로 시각화될 수 있는 것만 실체라 믿는 맹신 속에 정치적 힘이 있는 특정학파의 이론에 대한 맹목적 교육만이 행해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을 쥐고 있는 인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의 역사(醫歷史)속에 거론조차 될 수 없는 주체가 된 체, 백 여 년이 흐르고 만 것이다. 이것의 가능성이 묵과 되었던 과거가 혼돈스런 현대의학의 결과로 나타남은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주관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든 객관적인 디지털 방식이든 무엇이 더 좋은가를 따지기보다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에 따른 효율성과 적합성이 더 중요시 여겨져야 할 것이다.

키네지올로지의 전문화는 진정 많은 파급을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일정수준의 인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첨단의료장비와 시스템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 원인들을 전인적 관점에서 분석과 이해가 일정수준 가능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에 점차 큰 영향력으로도, 또한 대중들에게 스스로의 능력과 권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학문은 마치 유기체들의 상호교류와 통섭처럼 그 원리와 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전달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게끔 되어져 있기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유럽 각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을

직접 시찰하며 체감한 것이며, 이미 객관적 사실임을 아는 대체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의료인들보다 고통 받는 환자 자신들이기에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희망의 선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의학을 넘어 인류사에 미칠 영향력을 예견한다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혁신이자 진화적 매듭을 형성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키네지올로지의 전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분화과정을 거치고 성숙한 원리와 체계들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특화시킨 기법들이 난무했던 시기는 지나고, 정립되고 보다 객관성과 포괄성을 지닌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 속에 있는 전문화된 키네지올로지를 “Specialized Kinesiology”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문화된 지식들을 통합적인 체계로 만들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이 SK의 관건이다.

진정 생명의 원리로 우주의 지혜를 담은 체계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여기 13-2호 ‘생명정보와 바이오프로그래밍’ 참고)

이 의미에서 많은 원리와 기법들을 재정립 시키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의 창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생체정보반사학(SK Specialized Kinesiology)은 인체의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고, 생체정보들을 재구성하는 바이오프로그래밍(Bio-Programing) 기법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기존 키네지올로지의 단순성과 보수성을 넘어 여러 가능성 있는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진보적인 신개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요법 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초 개념

S.K는 인간이라는 개체차원의 정보와 우주라는 전체적 정보와의 일치성(Synchronization)을 통해 생명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기본원리(Holism)에 입각하고 있다. 생명정보 분석법을 통해 인체의 각 수준별(구조, 화학, 감정, 에너지) 부조화 영역과 요인을 파악하고, 원인 정보와 관련 정보들을 연결시킨 후, 생체 내에 재입력시킨 후 에너지를 공명 증폭시키는 기술적 이론에 따른 방법론과 시행절차가 있다.

이러한 S.K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디지털 방식의 다목적 인체 커뮤니케이션 성립
- 생체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법
- 원인 요소들 간의 관계성 파악 용이
- 내적·외적 원인에 따른 진행절차 확인 가능
- 다차원적 접근과 정밀한 처치 기술
- 결과에 대한 객관적 확인 가능
- 자연적 치유 프로세스 연결
- 자연적인 정보에너지의 공명과 증폭법 사용
- 문제의 전체인지 능력 회복
- 생체내 프로그래밍 장기 지속성

- 인체의 각 수준 다양한 처치기술
- 검사내용에 대한 체계적 상담

본 지면에서 모든 기술적 내용을 서술하기는 제약이 있어 조금 아쉽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체를 하나의 컴퓨터와 같이 디지털적인 정보처리방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 천, 수 만 가지의 생체정보를 대입시켜 나갈 수 있다. 생체의 표층 레벨부터 심층레벨 그리고 각 차원별 영역들의 정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진다(Vial Technology).

여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외부 환경인자들의 생체간섭 유무와 처리여부를 확인한 후 내적 환경인자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정보의학 원리가 담겨져 있다.

생체는 주어진 생태환경(外內)과 끊임없는 간섭교류를 통해 자신의 내적환경(內因)을 조절유지하는 항상성(Homeostasis)를 기본기능으로 생존한다. 따라서 잠재된 외부인자들의 부적절한 정보처리는 결국 내적 고유환경에 영향력을 주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수준과 스트레스인자(stress factor)의 정보를 확인처리 후, 내부환경의 관계고리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관계성을 살피고 그 상태의 콤플렉스(Complex)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밍 절차가 결정된다고 보면 좋겠다. 이 모든 절차에 따른 각각 적합한 테스트 방법들이 있으며 바이오 프로그래밍 기술은 선택적으로 한다.

간략히 설명되었지만, 이것은 분명 가능한 논리(論理)이며 합당한 생명이치이다.

※ (바이오프로그래밍(Bio programming)이란 바이오컴퓨터론에 입각한 기술로써 생명체의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Network)속에 재성립시키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전문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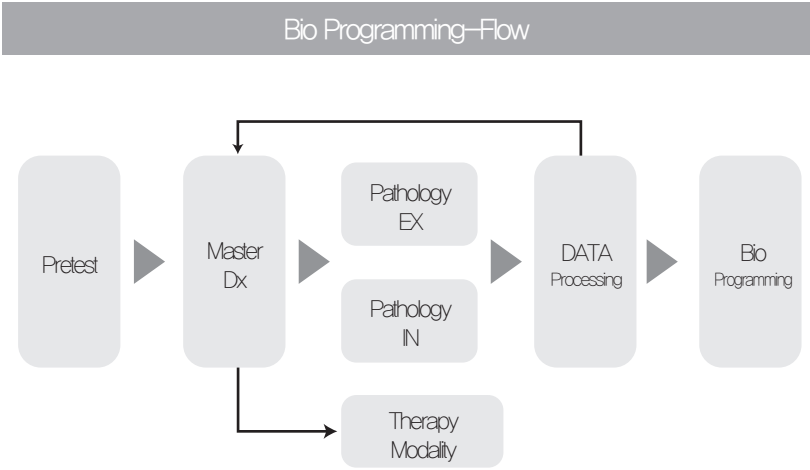


그림 1.

위의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면, 환자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검사자와 피검자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사전검사(Pretest)를 한 후, 전체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검사인 Master Dx의 과정을 거친다. 이 Master Dx 내에는 두 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병리환경(Pathology Ex)을 먼저 살핀 후에, 내부적 병리환경(Pathology IN)을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 도식화 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적 병리환경에는 알러젠(Allergen), 병원체(Pathogen), 환경적 독소들(Environmental Toxins)이며, 내부적 병리환경에는 신경계(Nervous System), 기관계

(Organ System), 심리계(Psychological System), 구조계(Structure System)이다. 내·외부적인 병리환경에서 각종 문제적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DATA Processing이라 하며, DATA를 생체가 재인식하고 처리하게 하는 과정을 Bio-Programming이라고 한다. DATA Processing과 Bio-programming 후 처리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시 Master Dx를 거치게 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적절한 치료 기법들(Therapy Modality)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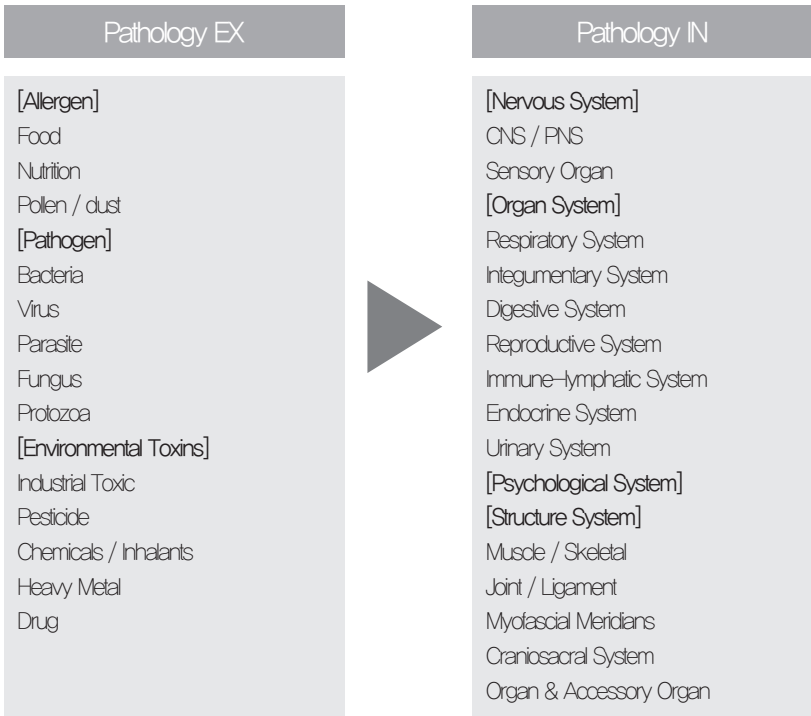



그림 2

글을 마치며...

S.K의 목적은 현대의학의 한계와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생 각해본다면 S.K의 의미와 목적은 간단한 것이다. S.K는 가능성이다. 무시되어선 안 될 중요한 가능성이다.

S.K에서는 생명의 모든 현상을 정보론으로 해석함으로써 모호했던 물질과 정신의 관계와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Solution)을 찾게 된다. 인체와 커뮤니케이션이란 곧 우주정보와의 교신을 뜻하며, 이 현 상을 직시하며 지혜로운 의학적 가능성을 고찰한다면 이것이 곧 제3의 학의 모태가 되어지리라 믿는다.

문명의 진보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의료집단이었다. 그것은 무지(無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다. 이제 스스로 치유하고 일깨워야 할 시대 이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최철규** | 現 생체정보반사학회(Specialized Kinesiology) 국제강사, Australian Associ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정회원, Australian Kinesiology Association 정회원, 영국 MET(Meridean Energy Therapy) 국제강사.